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1호 [루체 제23163호] 주제99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사설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p

수령을 투철한 신념과 의리로 받든 혁명전사

항일혁명투사 최춘국동지 서거 60돐에 즈음하여

항일혁명투쟁의 거세한 흐름은 어제날의 평범한 사람들을 우리 혁명의 1세로, 영웅으로, 시대의 선각자들로 얹세게 키워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백두에서 계획된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항일의 용강으로 믿음직하게 성장하였으며 조국해방과 새 조국건설, 정규적 혁명무역건설에 커다란 공헌을 한 항일혁명투사들속에는 최춘국동지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 6권에 〈독립련대설의 최춘국〉이라는 제목을 따로 설정하시고 그의 고결한 혁명정신과 투쟁영적을 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여주시고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에 온갖과 육신을 다 바친 사람, 투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부단히 단련시켜온 사람, 끌없이 유향하고 끌없이 억센 사람이었다고 강희깊이 회고하신 항일혁명투사 최춘국동지다.

일찍이 반일에 국의 뜻을 품고 혁명투쟁에 나선 때로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신념과 의리로 받든 최춘국동지의 충실했을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도를 더욱 충직하게 발들여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귀감으로 빛나고 있다.

최춘국동지의 서거 60돐에 즈음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유풍한 군사정치활동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헌직하였던 그의 빛나는 생애와 고귀한 투쟁영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들이켜보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역사는 자기 인민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현신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의 업적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들의 위훈은 세월이 흐르수록 더욱 빛나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령을 받드는 혁명적신념과 의리는 수령의 위대성과 자기 위엄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것은 최춘국동지의 빛나는 생애에 새겨져 있는 참된 진리이다.

최춘국동지는 태고난 혁명가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봤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일제에 대한 항거심은 높았으나 옮겨온 투쟁의 길을 찾지 못하고 남의 집 머슴으로, 철도공사장의 소년로 동자로 방랑하면 불우한 소년에 불파하였다.

이러한 그에게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투쟁의 달을 바로 올리도록 이끌어 주신 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주제 3 (1914)년 9월 6일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망국노의 설음을 벼거내며 체험하면서 성장한 최춘국동지는 진뼈도 굵기 전에 일제의 철도공사장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그 시기 최춘국동지는 두만강연안의 북부국경지대를 무장투쟁의 전략적거점으로 꾸릴 구상을 안으시고 온성지구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치워오로 만나 뺨과 귀중한 가르침을 받아안게 된것은 그의 혁명투쟁 생애에서 주적이 전환의 계기로 되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수령의 품에 안겨 혁명의 첫걸음을 떼 되었는가를 나는 알지 못하였다.

주제 19 (1930)년 10월 1일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국내에서의 첫 당조직을 결성하는 두루봉회의에 참가한 최춘국동지는 수령님의 제의에 의하여 영광스럽게도 온성지구의 당조직성원으로 되었다.

잊지 못할 그날 최춘국동지는 당원의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한생을 혁명 위해 몸바칠 각오로 심장을 불태웠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터친 최춘국동지의 심장의 웨침, 그것은 혁명의 길에 변함없이 수령님을 충직하게 받아들이려는 그의 혁명적신념의 분풀이였다.

그후 반일인민유격대에 입대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유풍한 군사정치일군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맞게 새로 결성된 노래도 잘 불려야 중대를 생기발랄하고 런천적인 중대로 꾸려나갈 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고 밤마다 밖에 나가 날물배 춤동작을 익혔으며 동네현성전투때에는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비발치는 탄우속을 뱃고들어가 적들의 포위에 둘러싸인 중국인반일부대의 사충항려단장을 구출해 왔던 최춘국동지, 왕천유격대를 조직하고 두만강연안에 유격근거지를 꾸리는데서 한동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래전부터 상사하고 계시던 국내전공작전을 위한 시범전투에 참가하여 일제의 도선장파출소연습전투를 대당하게 벌린 그의 빛나는 모습은 오늘도 면서 조직정치활동을 벌리면서 수령님께서 주체적 혁명가의 심장을 무엇을 위해 빛나게 고동쳐야 하는가를 산모법으로 철하였다.

온성지구에 도착한 최춘국동지는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었다.

그는 적들의 감시가 짚으하게 뒤따르는 속에서도 어려운 당시포와 국내혁명가들을 찾아나마루에 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 혁명

로선과 당조직건설방침을 해설해 주면서 조직정치활동을 벌리면서 수령님께서 주신 파업을 빛나게 판철하였다.

원을 할 수 있겠는가고 말씀을 하면서 자신있는 일은 그저 왜파 그 암잡이들을 죽이는 일뿐이니 평화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에게 나를 사랑하고 일제를 증오하는 동무의 그 마음을 대원들의 가슴에 심어주려. 그러면 정치지도원으로 자기 임무를 출통히 수행하는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면서 수첩 하나를 그에게 주시면서 첫페이지에 『땅에다 글을 쓰면서 다른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천필을 남기시였다.

그 후부터 최춘국동지는 학습과 훈련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였다. 그는 우리 글을 주준히 배우면서 동시에 한문까지 자습하였다.

그의 배낭에는 늘 우편이 들어 있었다. 90일 이상 걸린 간고한 전철방위전투에도 그는 한문공부를 중단하지 않았다. 후날 최춘국동지가 남에서 활동할 때 중어 편지를 써면서 수많은 위민군사들을 반일투쟁으로 둘러세운 사실은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천필을 가슴에 새기고 혁명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의 참뜻을 배우며 우수한 노래도 잘 불려야 중대를 생기발랄하고 런천적인 중대로 꾸려나갈 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고 밤마다 밖에 나가 날물배 춤동작을 익혔으며 동

네현성전투때에는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비발치는 탄우속을 뱃고들어가 적들의 포위에 둘러싸인 중국인반일부대의 사충항려단장을 구출해 왔던 최춘국동지, 왕천유격대를 조직하고 두만강연안에 유격근거지를 꾸리는데서 한동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래전부터 상사하고 계시던 국내전공작전을 위한 시범전투에 참가하여 일제의 도선장파출소연습전투를 대당하게 벌린 그의 빛나는 모습은 오늘도 면서 조직정치활동을 벌리면서 수령님께서 주신 파업을 빛나게 판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 대초 온성지구에 나오시여 국내의 첫 당조직을 무으신데 이어 주제 22 (1933)년 3월에는 역사적인 왕천성산회의 무장투쟁을 국내에 확대 발전 시킬 때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셨다.

이에 따른 조건에 맞게 새로 결성된 노래도 잘 불려야 중대를 생기발랄하고 런천적인 중대로 꾸려나갈 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고 밤마다 밖에 나가 날물배 춤동작을 익혔으며 동

네현성전투때에는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비발치는 탄우속을 뱃고들어가 적들의 포위에 둘러싸인 중국인반일부대의 사충항려단장을 구출해 왔던 최춘국동지, 왕천유격대를 조직하고 두만강연안에 유격근거지를 꾸리는데서 한동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래전부터 상사하고 계시던 국내전공작전을 위한 시범전투에 참가하여 일제의 도선장파출소연습전투를 대당하게 벌린 그의 빛나는 모습은 오늘도 면서 조직정치활동을 벌리면서 수령님께서 주신 파업을 빛나게 판철하였다.

온성지구에 도착한 최춘국동지는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었다. 그는 적들의 감시가 짚으하게 뒤따르는 속에서도 어려운 당시포와 국내혁명가들을 찾아나마루에 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 혁명

로선과 당조직건설방침을 해설해 주면서 조직정치활동을 벌리면서 수령님께서 주신 파업을 빛나게 판철하였다.

온성지구에 도착한 최춘국동지는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었다. 그는 적들의 감시가 짚으하게 뒤따르는 속에서도 어려운 당시포와 국내혁명가들을 찾아나마루에 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 혁명

로선과 당조직건설방침을 해설해 주면서 조직정치활동을 벌리면서 수령님께서 주신 파업을 빛나게 판철하였다.

온성지구에 도착한 최춘국동지는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었다. 그는 적들의 감시가 짚으하게 뒤따르는 속에서도 어려운 당시포와 국내혁명가들을 찾아나마루에 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 혁명

로선과 당조직건설방침을 해설해 주면서 조직정치활동을 벌리면서 수령님께서 주신 파업을 빛나게 판철하였다.

온성지구에 도착한 최춘국동지는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였다. 그는 적들의 감시가 짚으하게 뒤따르는 속에서도 어려운 당시포와 국내혁명가들을 찾아나마루에 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 혁명

로선과 당조직건설방침을 해설해 주면서 조직정치활동을 벌리면서 수령님께서 주신 파업을 빛나게 판철하였다.

온성지구에 도착한 최춘국동지는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였다. 그는 적들의 감시가 짚으하게 뒤따르는 속에서도 어려운 당시포와 국내혁명가들을 찾아나마루에 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 혁명

로선과 당조직건설방침을 해설해 주면서 조직정치활동을 벌리면서 수령님께서 주신 파업을 빛나게 판철하였다.

온성지구에 도착한 최춘국동지는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였다. 그는 적들의 감시가 짚으하게 뒤따르는 속에서도 어려운 당시포와 국내혁명가들을 찾아나마루에 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 혁명

로선과 당조직건설방침을 해설해 주면서 조직정치활동을 벌리면서 수령님께서 주신 파업을 빛나게 판철하였다.

온성지구에 도착한 최춘국동지는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였다. 그는 적들의 감시가 짚으하게 뒤따르는 속에서도 어려운 당시포와 국내혁명가들을 찾아나마루에 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 혁명

로선과 당조직건설방침을 해설해 주면서 조직정치활동을 벌리면서 수령님께서 주신 파업을 빛나게 판철하였다.

온성지구에 도착한 최춘국동지는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였다. 그는 적들의 감시가 짚으하게 뒤따르는 속에서도 어려운 당시포와 국내혁명가들을 찾아나마루에 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 혁명

로 보여주고 있다.

하거에 그의 중대는 수천명의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치열한 전투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려운 파업이 계기될 때마다 최춘국동지에게 말거 주시고 적국 내세워주신 것도 바로 그를 자신처럼 민으시였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 그것은 최춘국동지로 하여금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할 수 있게 한 정신의 원천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 그것은 최춘국동지로 하여금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할 수 있게 한 정신의 원천이었다.

최춘국동지로 하여금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기 위해 그의 중대는 수천명의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치열한 전투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거에 그의 중대는 수천명의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치열한 전투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려운 파업이 계기될 때마다 최춘국동지에게 말거 주시고 적국 내세워주신 것도 바로 그를 자신처럼 민으시였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 그것은 최춘국동지로 하여금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할 수 있게 한 정신의 원천이었다.

최춘국동지로 하여금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기 위해 그의 중대는 수천명의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치열한 전투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 그것은 최춘국동지로 하여금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할 수 있게 한 정신의 원천이었다.

최춘국동지로 하여금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기 위해 그의 중대는 수천명의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치열한 전투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 그것은 최춘국동지로 하여금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할 수 있게 한 정신의 원천이었다.

최춘국동지로 하여금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기 위해 그의 중대는 수천명의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치열한 전투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 그것은 최춘국동지로 하여금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할 수 있게 한 정신의 원천이었다.

최춘국동지로 하여금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기 위해 그의 중대는 수천명의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치열한 전투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 그것은 최춘국동지로 하여금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할 수 있게 한 정신의 원천이었다.

최춘국동지로 하여금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기 위해 그의 중대는 수천명의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치열한 전투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 그것은 최춘국동지로 하여금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할 수 있게 한 정신의 원천이었다.

최춘국동지로 하여금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기 위해 그의 중대는 수천명의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치열한 전투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 그것은 최춘국동지로 하여금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할 수 있게 한 정신의 원천이었다.

최춘국동지로 하여금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기 위해 그의 중대는 수천명의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치열한 전투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 그것은 최춘국동지로 하여금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할 수 있게 한 정신의 원천이었다.

최춘국동지로 하여금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기 위해 그의 중대는 수천명의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치열한 전투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 그것은 최춘국동지로 하여금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할 수 있게 한 정신의 원천이었다.

최춘국동지로 하여금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기 위해 그의 중대는 수천명의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치열한 전투로 남아있

